

(가)

인간(人間)을 썬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름도 허려 하고 들도 마즈려코
 밥으란 언제 줌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허라 나을소냐
 ㉠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허라
 이 뵈히 안즈 보고 더 뵈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흔 막음의 바릴 일이 아조 업다
 설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허리아
 다만 흥 청려장(靑藜杖)이 다 드디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늑며 트이며 허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꼭람허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흥가(閑暇)허다
 회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령곰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

(나)

㉢ 연하(煙霞)의 깃피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맞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괴 성은(聖恩)인가 호노라
 <제3수>
 들 붉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호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호노라
 <제5수>
 식록(食祿)을 굿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호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호건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 바리연디: 버려진 지.

* 단정: 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
 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

어댄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
 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급에 이름난
 화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
 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
 다. 벽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
 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
 고 차가웠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꽃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은 놉만 골라 심었다.

[A]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
 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
 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
 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
 든 이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
 는데, 집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
 기에서 흐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이어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 작지
 만 큰 산을 본뻗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
 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
 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
 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
 진다. ㉡ 이 축소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건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
 분하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
 인데 무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
 아하는 것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은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B]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
 벽 밑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
 거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1)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국어 34-38번, 고전시가

않을 때, 배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췌야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로써 귀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플로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선생님: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보기 2>

-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플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3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재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러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닷컴

http://legendstudy.com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2)

(가)

바람이 소슬하야 나뭇잎이 다 진 후의 계산(溪山)이 삭막거늘
겨울이 조화 부러 백설(白雪)을 누리오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가 경요굴이 되었거늘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노피 드니
가없는 설경(雪景)은 다 시(詩)의 체재가 되여시니
우활(迂闊)*흔 정신(精神)이 추위를 어이 알꼬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도라오니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꺾세고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라
냥짓대 드리우니 칠리탄*과 엇더흔고
이원의 반곡*이 이러던가 엇더하며
무이산의 청계는 이에서 더 도흔가
화산(華山)의 한 부분은 나누자 흐거니와
이 ㉠ 별천지는 나뭇에 누 아논고

< 중략 >

산조산화(山鳥山花)를 내 버슬 삼아 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긴 대로 노는 몸이
공명(功名)을 생각하며 빈천(貧賤)을 설위홀가
단사표음(單食瓢飮)을 내 분수로 여기니 일월(日月)도 한가홀사
이 계산(溪山) 경물(景物)을 슬토록 거느리고
백 년 세월을 노닐다가 마치리라
아이야 사립문 닫아라 세상 알까 흐노라

- 정훈, 「용추유영가」 -

*우활: 사리에 어둡고 세상 물정을 잘 모름. *허유: 중국 요임금 때 은사(隱士).
*칠리탄: 중국 후한 때 엄광이 몸을 숨긴 동강의 여굴.
*반곡: 중국 당나라 때 이원이 은거한 곳.

(나)

맑은 하늘 들 붉거늘 일장금(一張琴)을 빗기 안고
난간(欄干)에 기대 안자 옛 양춘곡(陽春曲)을 트온마리
엇더타 님 향흔 시름이 곡조(曲調)마다 나느니

<제1수>

시절이 하 수상하니 마음을 둘 디 업다
교목(喬木)도 네 굵고 신하도 그득하되
의론(議論)이 여긔 저긔 하니 그를 몰라 흐노라

<제3수>

송옥(宋玉)*이 마을홀 만나 므스 이리 슬프던고
차가운 서리 흰 이슬은 하늘히 기운이라
이 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 마을이 업서라

<제6수>

공맹(孔孟)의 적통(嫡統)*이 느려 주자(朱子)께 다다르니
자세한 학문(學文)은 궁리(窮理) 정심(正心) 나란히 일렀네
엇더타 강서(江西) 의론(議論)*은 그를 지리(支離)타 흐던고

<제9수>

장부(丈夫)의 몸이 되어 기한(飢寒) 두려울까
일산(一山) 풍월(風月)애 즐거움이 마이 업다
내 마다* 부운(浮雲) 부귀(富貴)를 따를 줄 이시라

<제11수>

득군행도(得君行道)는 군자(君子)의 뜻이로디
때를 못 만나며는 고반(考槃)*을 즐겨흐니
넉넉흔 솔바람에 달보기야 나 썬인가 흐노라

<제12수>

- 장정세, 「강호연군가」 -

*송옥: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으로 굴원의 제자.
*적통: 정식으로 대를 이은 계통.
*강서 의론: 주희와 육구원이 강서에서 논쟁함. 주자학을 비판한 강서학파를 의미함.
*마다: 싫다. *고반: 벼슬에 나가지 않고 자연에 묻혀 풍류를 즐김.

(다)

바구니를 가지고 산으로 나물을 뜯으러 가던 그 시절이 얼마
나 행복했는지 그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일이다.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는 모두 다 내 나물 동무들이었다.
할나물, 고사리 같은 것은 깊은 산으로 들어가야만 꺾을 수가
있었다. 뱀이 무섭다고 하는 나한테 섭섭이는 부지런히 씹순을
꺾어서 내 머리에다 갈아 꽃아 주며, 이것을 꺾고 다니면 뱀이
못 달려든다는 것이었다. 산나물을 캐러 가서는 산나물만을 찾
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산 저 산으로 뛰어다니며 삻꾹채를
꺾고 싱아를 캐고 심지어는 칫뿌리도 캐는 것이었다. 칫뿌리를
캐서 그 자리에서 먹는 맛이란 또 대단한 것이다. 그러나 평이
푸드덕 날면 캄짝들 놀라곤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산나물을 뜯던
그 그리운 고향엔 언제쯤 가게 될 것인가?
고향을 떠난 지 30년. 나는 늘 내 기억에 남은 고향이 그림고
오늘처럼 이런 산나물을 대하는 날은 고향 냄새가 물큰 내 마음
을 찢러 어쩔 수 없이 만들어 놓는다.

< 중략 >

진달래도 아직 꺾어 보지 못한 채 봄은 완연히 왔는데, 내 마
음속 골짜구니에는 아직도 얼음이 안 녹았다. 그래서 내 심경은
여태껏 춥고 방 안에서 밖엘 나가고 싶지가 않은 상태에서 모두
가 쓸찌년스럽다.

시골 두메 촌에서 어머니를 따라 달구지를 타고 이삿짐을 실
리고 서울로 올라오던 그때부터 나는 이미 ㉡ 에덴 동산에서 내
쫓긴 것이다.

그리고 씹순을 머리에다 안 꽃고 다닌 탓인가, 뱀은 내게 달
려들어 술한 나쁜 지혜를 넣어 주었다.

10여 년 전 같으면 고사포(高射砲)를 들이댔을 미운 사람을
보고도 이제는 곧잘 웃고 혼연스럽게 대해 줄 때가 있어 내가
그 순간을 지내놓고는 아찔해지거니와 풍우난설(風雨亂雪)의 세
월과 함께 내게도 꽤 때가 앉았다.

심산(深山) 속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의 품에서 퍼질 대
로 퍼지고 자랄 대로 자란 싱싱하고 향기로운 이 산나물 같은 사
람을 만나기란 요즘 세상엔 힘든 노릇 같다. 산나물 같은 사람
이 어디 없을까? 모두가 역세고 꼬부라지고 별레가 먹고 어떤
자는 가지까지 들쳐 있다.

어디 산나물 같은 사람은 없을까?

- 노천명, 「산나물」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고사를 활용하여 삶에 대한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계절감을 나타낸 어휘를 사용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을 대조하여 삶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다.

2)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국어 37-41번. 고전시가.

38.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우활흔 정신’은 속세에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나)의 ‘장부의 몸’은 자연 속에 사는 화자를 가리킨다.
 - ② (가)의 ‘내 부러워하라’와 (나)의 ‘나 뿐인가 흐노라’에는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 ③ (가)의 ‘남짓대’는 화자의 흥취가 드러나는, (나)의 ‘양춘곡’은 화자의 시름이 묻어나는 소재이다.
 - ④ (가)의 ‘공명’과 (나)의 ‘부귀’는 화자가 거리를 두는 대상이다.
 - ⑤ (가)의 ‘계산 경물’과 (나)의 ‘일산 풍월’은 화자가 즐기는 풍류의 대상이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강호연군가」에서 강호에 은거해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때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정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 가던 작가의 고뇌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1수: 강호에서도 임금을 잊지 못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3수: 당쟁이 계속되는 나라의 상황을 걱정하는 작가의 고뇌를 엿볼 수 있군.
- ③ 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하며 자연의 변화 속에서 근심을 잊고 사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9수: 성현의 학문적 정통성을 언급하며 그들의 학문을 칭송하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⑤ 12수: 군자의 뜻을 실현할 수 없는 혼란한 정국에서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이 작품에는 고향과 인정(人情)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나타난다. 글쓴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의 체험과 그 체험 속의 풍물들을 통해 지난날의 순수를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 ① ‘예쁜이, 섭섭이, 확실이, 네째’ 등을 떠올리는 것에서 아름답고 낭만적인 유년 시절을 추억하는 글쓴이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뽕꼭재’, ‘싱아’, ‘칠뿌리’ 등은 유년 시절 글쓴이의 체험 속 풍물들에 해당하는군.
- ③ ‘나’가 오늘 마주한 ‘산나물’은 글쓴이에게 고향과 인정에 대한 그리움을 환기하는군.
- ④ ‘미운 사람’을 보고도 반갑게 웃어주는 글쓴이의 모습에서 순수함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바람이 드러나는군.
- ⑤ ‘산나물 같은 사람’을 찾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글쓴이의 마음을 엿볼 수 있군.

4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와 달리 동심이 유발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와 달리 새로운 소식을 듣는 공간이다.
- ③ ㉠과 ㉡는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 ④ ㉠과 ㉡는 모두 긍정적인 가치가 부여된 공간이다.
- ⑤ ㉠과 ㉡는 모두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공간이다.

[32~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³⁾

(가)

서경(西京)이 아즐가 서경(西京)이 서울히마르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닷곤디 아즐가 닷곤디 쇼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여히므른 아즐가 여히므른 **질삼뵈** 브리시고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괴시란디 아즐가 괴시란디 **우러곰 좃노이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제1편>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희에 디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긴히쑤 아즐가 긴히쑤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즘른 히를 아즐가 즘른 히를 외오곰 너신들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신(信)잇돈 아즐가 신(信)잇돈 **그즈리잇가** 나는
 위 두어령성 두어령성 다령디리

[A]

<제2편>

- 작자미상, ‘서경별곡’.

(나)

이 몸이 녹아져도 옥황상제 처분이요
 이 몸이 식여져도 옥황상제 처분이라
 녹아지고 식여지어 혼백(魂魄)조차 흩어지고
 공산(空山) 축루(觸樓)*같이 임자 업시 구닐다가
 곤륜산(崑崙山) 제일봉의 만장송(萬丈松)이 되어 이서
 바람비 뿌린 소리 님의 귀에 들리기나
 윤회(輪廻) 만겁(萬劫)하여 금강산(金剛山) 학(鶴)이 되어
 일만 이천봉에 믿음껏 솟아올라
 7을 들 불근 밤에 두어 소리 **슬피 우리**
 님의 귀에 들리기도 옥황상제 처분이로다
 혼(恨)이 뿌리 되고 눈물로 가지 삼아
 님의 집 창밭기 외나모 매화(梅花) 되어
 설중(雪中)에 혼자 피어 침변(枕邊)*에 시드는 듯
 월중(月中) 소영(疎影)*이 님의 옷에 **빛취어든**
 어엿븐 이 얼굴을 너로다 **반기실가**
 동풍이 유정(有情)하여 암향(暗香)을 불어 올려
 고결(高潔)흔 이내 생애 죽림(竹林)에나 부치고겨
빈 낙대 빗기 들고 빈 비를 혼자 띄워
 백구(白溝) 건너 저어 **건덕궁(乾德宮)**에 가고지고

- 조위, 만분가 -

* 공산 축루 : 텅 빈 산의 해골. * 침변 : 베갯머리.
 * 월중 소영 : 달빛에 언뜻언뜻 비치는 그림자.

3)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32-34번, 고전시가(2018년 6월 시행)

32.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서울'과 (나)의 '건덕궁'은 모두 화자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② (가)의 '질삼배'와 (나)의 '빈 낙대'는 모두 화자가 현재 회피 하고 싶은 대상이다.
 - ③ (가)의 '우러곰'과 (나)의 '슬피 우러'는 모두 임의 심정을 드러 내고 있다.
 - ④ (가)의 '쫓니노이다'와 (나)의 '빗취어든'은 모두 임의 곁에 있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그즈리잇가'와 (나)의 '반기실가'는 모두 미래 상황에 대한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33.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임자 엽시 구닐'던 '이 몸'이 '학'이 되어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상승의 이미지를 구현하고 있다.
 - ② '만장송'과 '매화'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임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표상하고 있다.
 - ③ '바람비 뿌린 소리'와 '두어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임에게 알리고 싶은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매화'의 '뿌리'와 '가지'를 활용하여 '흔'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ㄱ을 들 볼근 밤'과 '월중'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임과 재회한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34.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A]와 <보기>의 [B]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서경별곡 의 제2연에서 여음구를 제외한 부분은 당시 유행하던 민요의 모티프를 수용한 것으로, 정석가 에도 동일한 모티프가 나타난다. 고려 시대의 문인 이제현도 당시에 유행하던 민요를 다음과 같이 한시로 옮긴 적이 있다.

비록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도
 끈은 진실로 끊어질 때 없으리.
 낭군과 천 년을 이별한다고 해도
 한 점 붉은 마음이야 어찌 바뀌리오?

]

[B]

]

- ① [A]와 [B]에서 '구슬'은 변할 수 있는 것을, '긴'이나 '끈'은 변하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소재로 활용하였군.
- ② [A]에서는 '신'을, [B]에서는 '붉은 마음'을 굳건한 '바위'로 형상화 하였군.
- ③ [A]와 [B] 모두에서 변하지 않는 마음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는군.
- ④ [A]와 [B]를 보니 동일한 모티프가 서로 다른 형식의 작품으로 수용되었군.
- ⑤ [A]와 [B]를 보니 여음구의 사용 여부에 차이가 있군.

[38~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4)

(가)

청산(靑山)은 에워 들고 녹수(綠水)는 도라가고
 석양(夕陽)이 거들 쎄에 신월(新月)이 소사난다
 안전(眼前)의 일존주(一尊酒)* 가지고 시름 프자 흥노라
<제1수>

강산(江山)의 눈이 닳고 세로(世路)의 늦치 서니
 어디 뉘 문(門)의 이 허리 굽닐손고
 일존주 삼척금(三尺琴) 가지고 백년소일(百年消日)호리라
<제3수>

너 말도 늙이 마소 늙의 말도 너 아닌너
 고산(孤山) 불고정(不孤亭)의 조하 늙는 몸이로쇠
 어디셔 망녕의 손이 검다 세다 흥나니
<제4수>

┌ 엇기제 비즌 술이 다만 세 병(瓶)뿐이로다
 [A] 흥 병(瓶)은 물의 놓고 쏘 흥 병(瓶) 피회 노서
 └ 이 빗기 나쁜 병(瓶) 가지고 달의 논들 엇더리
<제6수>

생애도 고초(苦楚) 흥고 세미(世味)*도 담박(淡泊) 흥다*
 흰 술 흥두 잔의 프른 글귀 뿐이로쇠
 옥경현(玉鏡軒)* 평생행장(平生行狀)이 이 빗기는 업세라
<제7수>

칠현(七絃)이 냉냉(冷冷)흥니 네 소리는 잇다마는
 종기(鍾期)*을 못 맛나니 이 곡조(曲調) 게 뉘 알이
 벽공(碧空)의 일륜명월(一輪明月)이 너 버진가 흥노라
<제9수>

- 장복겸, 「고산별곡(孤山別曲)」

*일존주: 한 통의 술. *세미: 세상 사는 맛.
 *담박하다: 멋스럽지 못하다. *옥경현: 작가 소유의 진각의 이름이며 아호임.
 *종기: 중국 춘추 시대 인물로 자신의 친구인 백아의 거문고 실력이 뛰어난을 알아봄.

(나)

까치 소리는 반갑다. 아름답게 굴린다거나 구슬프게 노래한 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하게 짓는 단 두 음절 '각각'. 첫 '각'은 높고 둘째 '각'은 낮게 계속되는 단 순하고 간단한 그 음정(音程)이 그저 반갑다.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 소리를 좋아했다. 지금도 아침에 문을 나설 때 까치 소리를 들으면 그 날은 기분이 좋다.

반포지은(反哺之恩)을 안다고 해서 효조(孝鳥)라 일러 왔지만 나는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좋다. 사랑 앞마당 밤나무 위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그것이 길조(吉兆)라서 그 해 안변부사(安邊府使)로 영전(榮轉)이 되었다던가, 서재(書齋) 남창 앞 높은 나뭇가지에 까치가 와서 집을 짓더니 글재주가 크게 늘어서 문명(文名)을 날렸다던가 하는 옛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까치 소리는 반갑고 기쁘다.

나는 까치뿐이 아니라 까치집을 또 좋아한다. 높은 나무 위에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엉성하게 엮어 놓은 것이, 나무에 그대로 어울려서 덧붙여 놓은 것 같지가 않고 나무 삭정이 가 그대로 떨어져서 쌓인 것 같다. 그러면서도 소쇄한 맛이 난다. 엉성하게 엮어 놓은 그 어리가 용하게도 비가 아니 샌다. 오직 달빛과 바람을 받을 뿐이다.

나는 항상 이답에 내 사랑채를 짓는다면 꼭 저 까치집같이 소쇄한 맛이 나도록 짓고 싶었다. 내가 완자창(完字窓)이나 아자창(亞字窓)을 취하지 않고 간소한 용자창(用字窓)을 좋아하는 이유도 그런 정서에서다. 제비집같이 아늑한 집이 아니면 까치집

4)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국어 38-41번, 갈래복합(고전시가+수필)

같이 소재한 집이라야 한다. 제비집은 얽전하고 단아한 가정 부인이 매만져 나가는 살림집이요, 까치집은 쾌락하고 풍류스러운 시인이 거처하는 집이다.

비둘기장은 아무리 색스럽게 꾸며도 **장**이지 집이 아니다. 다른 새 집은 새 보금자리, 새둥지, 이런 말을 쓰면서 오직 제비집 까치집만 **집**이라 하는 것을 보면, 한국 사람의 집에 대한 관념이나 정서를 알 수가 있다. 한국 건축의 정서를 알려는 건축가들은 한번 생각해 볼직한 문제인 듯하다. 요새 고층 건물, 특히 아파트 같은 건물들을 보면 아무리 고급으로 지었다 해도 그것은 ‘사람장’이지 ‘집’은 아니다.

지금은 아침 여덟 시, 나는 **정릉 안 숲** 속에 자리 잡고 앉아 있다. 오래간만에 까치 소리를 들었다. 나뭇잎들은 아침 햇빛을 받아 유난히 곱게 푸르다. 나뭇잎 사이사이로 파란 하늘이 차갑게 맑다. 그간 비가 많이 왔던 관계로 물소리도 제법 크게 들려온다. 나는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여길 와 본 적이 있었다. 보건 운동을 하러 온 사람, 약물을 먹으러 온 사람들로 붐비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와 보니 **산**은 아무도 없고 그윽한 숲 속이 한없이 고요하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다. 까치들이 내 앞에 와서 **깡충깡충** 뛰어나간다. 이른바 까치걸음이다. 손으로 만져도 가만히 있을 것만 같다. 그렇게 사람이 옆에 앉아 있다는 데는 아무 관심이나 의구심도 없이 내 옆에서 **깡충깡충** 뛰놀고 있다.

나는 일찍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민화(民畵)** 하나를 생각한다. 한 노옹(老翁)이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낮잠을 자는데, 그 배 위에 까치 한 마리가 우뚝 서 있었다. 나는 신기한 그 상상화에 기쁨을 느꼈다. 민화란 어린아이와 자유화(自由畵)같이 천진하고 기발한 데가 있어서 저런 재미있는 그림도 그려진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저 까치들을 보고 그것은 기발(奇拔)한 상상이 아니요, 사실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예전에 이지봉(李芝峯)이 정호음(鄭湖陰)의 “산과 물이 바람에 소리치며, 강물은 거세게 울먹이는데, 달은 외로이 비쳐 있다.”는 시를 보고 ‘강물이 거세게 이는데 달이 외롭게’라는 건 실경(實景)에 맞지 않는다고 **평(貶)**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달이 고요히 밝은 밤중에는 물결이 잔잔한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김백곡(金百谷)이 황강역(黃江驛)에서 자다가 여울 소리가 하도 거세기에 문을 열고 보니 달이 외롭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비로소 그 구가 실경을 그린 명구(名句)인 것을 알았다는 **시화(詩話)**가 있다. 나도 그 민화가 실경인 것은 모르고 기상(奇想)으로만 여겼던 것이다.

그 태고연(太古然)한 풍경의 민화 한 폭이 다시금 눈앞에 [B] 뚜렷이 떠오른다. 나무 밑에서 허연 배를 내놓고 누워서 잠자는 노옹(老翁), 그 배 위에서 있는 까치 한 마리.

- 윤오영, 「까치」

38.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가)에는 불우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나)에는 대상을 관조하며 가치 있는 삶에 대해 사색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나)에는 현재의 처지를 개선하여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뇌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9.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B]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A]는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B]는 대상을 의인화하는 방식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구체적 대상에 빗대어, [B]는 추상적 소재를 열거하여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A]와 [B]는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자연이 지닌 역동적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사물을 매개로 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40.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강호한정을 노래한 시조에서 사대부들은 세속적 삶을 멀리하고 물질적 빈곤 속에서도 자연과 함께 정신적 풍요를 누리며 만족해 하는 모습을 드러낸다. 「고산별곡」에서도 작가는 평생 관직에 몸담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며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출사의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특별히 이루어 놓은 일 없이 만년에 접어들었다는 작가의 안타까움도 작품 속에 담겨 있다.

- ① <제1수>에서 화자는 ‘청산’, ‘녹수’ 등을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면서도 만년에 느끼는 시름을 ‘일존주’로 달래려 하고 있어.
- ② <제3수>에서 화자는 ‘세로’의 삶과 달리 ‘백년소일’하는 ‘강산’에서의 삶을 긍정하며 자연에 은거하는 삶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
- ③ <제4수>에서 화자는 ‘늬’, ‘손’의 평가와 상관없이 ‘고산 불고정’에서 지내는 삶을 통해 현재의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어.
- ④ <제7수>에서 화자는 ‘고초’하고 ‘담박’했던 생애를 긍정하면서도 ‘흰 술’에 만족해야 하는 현재의 삶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어.
- ⑤ <제9수>에서 화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일륜명월’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달래고 있어.

41.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작품의 소재를 중심으로 주제 제시 과정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어느 날 이른 새벽’의 경험과 대비되는 ‘정릉 안 숲’에서의 경험은 이 글의 창작 동기가 되고 있다.

- ② ‘까치 소리’의 ‘기교 없이 가볍고 솔직’한 속성에 주목하여 ‘반갑다’라고 정서를 드러내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③ 까치에 이어 ‘까치집’을 떠올리면서 그 특성을 서술하고 ‘소쇄한 맛’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것이 좋은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까치집’에서 다시 ‘제비집’, ‘비둘기장’으로 소재가 이어지면서 ‘집’과 ‘장’의 차이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 ⑤ ‘민화’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을 바탕으로 ‘시화’에 담긴 상반된 해석들을 비판하면서 글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⁵⁾

(가)

생평(生平)에 원^하느니 다만 충효(忠孝)뿐이로다
이 두 일 말면 금수(禽獸) | 나 다르리야
마음에 ^하고져 ^하야 십재황황(十載惶惶)*^하노라 <제1수>

계교(計校)* 이렇더니 공명(功名)이 늦었어라
부급동남(負笈東南)*^하야 여공불급(如恐不及)*^하는 뜻은
세월이 물 흐르듯 ^하니 못 이룰까 ^하야라 <제2수>

강호(江湖)에 놀자 ^하니 성주(聖主)를 버리겠고
성주를 섬기자 ^하니 소락(所樂)에 어긋나네
호은자 기로(岐路)에 서서 갈 데 몰라 ^하노라 <제4수>

출(出)^하면 치군택민(致君澤民) 처(處)^하면 조월경운(釣月耕雲)
명철군자(明哲君子)는 이룰사 즐기느니
하물며 부귀(富貴) 위기(危機) | 라 빈천거(貧賤居)를 ^하오리라 <제8수>

행장유도(行藏有道)*^하니 버리면 구태 구^하랴
산지남(山之南) 수지북(水之北) 병들고 늙은 나를
뉘라서 회보미방(懷寶迷邦)*^하니 오라 말라 ^하노뇨 <제16수>

성현(聖賢)의 가신 길이 만고(萬古)에 ^하가지라
은(隱)커나 현(見)*커나 도(道) | 어찌 다르리
일도(一道) | 오 다르지 아니커니 아무 텐들 어떠리 <제17수>
- 권호문, 한거십팔곡 -

*십재황황 : 급한 마음에 십 년을 허둥지둥함.

*계교 : 건주어 헤아림.

*부급동남 : 책을 짊어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함.

*여공불급 : 이르지 못할까 두려워하듯 함.

*행장유도 : 쓰이면 세상에 나아가 도(道)를 행하고 버리지면 은둔 하는 것을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알맞게 함.

*회보미방 :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 은둔하는 것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과 같음.

*현 : 세상에 나아감.

(나)

진주 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닷맛이 깔리는 해 다 진 어스름을,

울 엄마의 장사 끝에 남은 고기 몇 마리의
빛 발(發)하는 눈깔들이 속절없이
은전(銀錢)만큼 손 안 닿는 한(恨)이던가
울 엄마야 울 엄마,

별 받은 또 그리 멀리
우리 오누이의 머리 맞댄 골방 안 되어
손 시리게 떨던가 손 시리게 떨던가,

진주 남강 맑다 해도 오명 가명
신새벽이나 밤빛에 보는 것을,
울 엄마의 마음은 어땀했을까,
달빛 받은 용기전의 용기들같이
말없이 글썽이고 반짝이던 것인가.

- 박재삼, 추억에서 -

(다)

시의 원심력을 담당하는 비유와 달리 리듬은 시의 구심력을 담당한다. 글자의 개수이건 음의 보폭이건 동일 요소의 반복은 시에 질서를 부여하고 리듬을 형성한다. 그런데 고전 시가의 리듬에는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반면 현대 시의 리듬은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가령 시조는 4음보를 기본으로 종장 첫 음보는 3음절을 유지하고, 둘째 음보는 그보다 길게 하는 규율을 따른다. 현대 시에서는 따라야 할 규율이 없는 대신 말소리, 휴지(休止), 고전 시가에 없던 쉼표나 마침표 등 모든 요소들의 책임이 더 커졌다. 이들의 반복은 내적 규범을 형성하여 시의 고유한 의미를 만들어 낸다.

“멀위랑/드래랑/먹고”와 같은 고려 속요의 3음보, “동짓들/기나긴 밤을/한 허리를/버혀 내어”와 같은 시조의 4음보 등 고전 시가의 리듬은 현대에 이르러 해제되었다기보다는 배후로 물러나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어떤 시는 고전 시가의 리듬이 강하게 감지되어 친숙하지만 어떤 시는 리듬이라고 할 만한 부분이 거의 감지되지 않아 낯설다. 우리는 앞의 예를 김소월의 시에서, 뒤의 예를 이상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의 현대 시는 김소월과 이상 사이에서 각각의 좌표를 찍는다.

1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미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시적 공간의 탈속성이 시상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④ 계절적 배경을 소재로 하여 시적 분위기를 고조하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여 화자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17.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2수>의 ‘부급동남’은 <제4수>의 ‘성주를 섬기’기 위해 화자가 행한 일이다.
- ② <제2수>의 ‘공명’을 이루기 위해 화자는 <제17수>의 ‘성현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한다.
- ③ <제4수>의 ‘강호’를 화자가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제8수>의 ‘부귀 위기’이다.
- ④ <제4수>의 ‘기로’가 <제17수>의 ‘일도’로 나타난 데에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제8수>의 ‘빈천거를 ^하’면서도 화자는 <제17수>의 ‘도’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국어 16-20번, 갈래복합

18. <보기>를 통해 (가)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조선 시대에 과거 급제는 개인이 입신양명하는 길이자 부모에게 효도하고, 임금을 보필할 수 있는 주된 통로였다. 권호문 역시 이를 위해 과거에 여러 번 응시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모친 사후, “뜻을 얻으면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베풀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을 수양한다.”라는 유교적 출처관(出處觀)에 따라 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는 42세 이후 줄곧 조정에 천거되어 정치 현실로 나올 것을 권유받았으나 매번 이를 거절했다. 「한거십팔곡」에는 권호문의 이러한 삶과 생각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① <제1수>의 ‘충효’는 화자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덕목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제1수>에서 화자가 ‘십재황황’하는 모습은 과거에 여러 차례 응시했으나 급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제16수>의 ‘행장유도하니’는 화자가 유교적 출처관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제16수>의 ‘병들고 늙은 나를’은 화자가 정치 현실로 나오라는 권유를 거절하는 표면적 이유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제16수>의 ‘회보미방’은 조정의 권유에 대한 화자의 답변으로 볼 수 있겠군.

19.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 다 진 어스름’은 어둠이 깔리는 파장 무렵 ‘생어물전’의 분위기를 보여 주는군.
- ② ‘빛 발하는 눈깔’은 ‘손 안 닿는’ ‘은전’과 연결되어 ‘한’의 정서를 유발하는군.
- ③ ‘손 시리게 떨던가’에서는 추운밤 ‘별 발’ 아래의 ‘골방’ 속에서 느꼈던 행복감이 드러나는군.
- ④ ‘진주 남강’은 공간적 구체성을 보여 주는 한편 낮에 강을 보지 못할 정도로 바빠 생계를 꾸려 가던 ‘울 엄매’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⑤ ‘글썩이고 반짝이던’은 달빛이 비친 ‘웅기’의 표면과 ‘울 엄매’의 눈물을 함께 환기하는군.

20. (다)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각 수의 중장 첫째 음보를 3음절로 한 것은 내적 규범을 따른 것이다.
- ② (가)에서 각 수의 중장 둘째 음보의 글자 수가 첫째 음보의 글자 수보다 많은 것은 따라야 하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 ③ (나)에서 ‘울 엄매야 울 엄매’는 울림소리의 반복으로 리듬을 창출하고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 것이다.
- ④ (나)에서 ‘오명 가명’은 외적 규율에 따라 ‘ㅇ’을 반복하여 일터의 무료한 삶에 생동감을 불어넣은 예이다.
- ⑤ (나)에서 1연부터 3연까지 쉽표로 연을 마무리한 것은 고전 시가의 리듬을 계승한 예이다.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38 ~ 4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⁶⁾

(가) 네는 양주(楊州) | 조올허여
 디위에 신도형승(新都形勝)이샷다*
 기국성왕(開國聖王)이 성덕(聖代)를 니르어샷다
 잣다운더* 당금썩(當今景) 잣다운더
 성슈만년(聖壽萬年)헝샤 만민(萬民)의 함락(咸樂)이샷다*
 아으 다롱다리
 알쑤 한강슈(漢江水)여 뒤흔 삼각산(三角山)이여
 덕둥(德重)헝신 강산(江山)즈으메 만세(萬歲)를 누리쇼셔
 - 정도전, 「신도가(新都歌)」 -

* 신도형승이샷다 : 새 도읍의 뛰어난 경치로다.
 * 잣다운더 : 도성답구나.
 * 함락이샷다 : 함께 즐거워하도다.

(나) 바위에 섰는 솔이 늙연(凜然)한* 줄 반가온더
 풍상(風霜)을 겪어도 여위는 줄 전혀 업다
 어찌다 봄빛을 가져 고칠 줄 모르나니

<제1수>

동리(東籬)에 심은 국화(菊花) 귀(貴)한 줄을 닮아나니
 춘광(春光)을 빈폐하고* 엄상(嚴霜)에 혼자 피니
 어즈버 청고한 내 벗이 다만 넌가 하노라

<제2수>

꽃이 무한(無限)호되 매화(梅花)를 심은 뜻은
 눈 속에 꽃이 피어 한 빛인 줄 귀하도다
 하물며 그옥한 향기(香氣)를 아니 귀(貴)코 어이리

<제3수>

백설(白雪)이 잣은 날에 대를 보려 창(窓)을 여니
 온갖 꽃 간 데 업고 대숲이 푸르려세라
 어찌서 청풍(淸風)을 반겨 흔덕흔덕* 하나니

<제4수>

- 이신의, 「사우가(四友歌)」 -

* 늙연한 : 위엄이 있고 당당한. * 빈폐하고 : 마다하고.
 * 흔덕흔덕 : 흔들흔들.

(다) 숨이 턱에 닿고 온몸이 땀에 먹을 감는 한 시간 남짓의 길을 허비하여 나는 겨우 석굴암 앞에 섰다. 멀리 오는 순례자를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듯한 석간수는 얼마나 달고 시원한지! 언거푸 두 구기를 들이키며, 피로도 잊고 더위도 잊고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엄습하여 표현히 티끌 세상을 떠난 듯도 싶다. 돌층대를 올라서니 들어가는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이 흡뜰 눈과 부르건은 팔뚝으로 나를 위협한다. 어깨는 엄청나게 벌어지고, 배는 훌쩍하고, 사지는 울통불통한 세찬 근육! 나는 힘의 예술의 표본을 본 듯하였다.

한번 문 안으로 들어서매, 석련대(石蓮臺) 위에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저절로 보는 이의 불심을 불려일으킨다. 한군데 빈 곳 없고, 빠진 데 없고, 어디까지나 원만하고 수려한 얼굴, 알맞게 벌어진 어깨, 슬며시 내민 가슴, 통통하고도 점잖은 두 팔의 곡선미, 장중한 그 모양은 천추에 빼어난 걸작이라 하겠다.

6)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국어 38-42, 갈래복합

좌우 석벽의 허리는 열다섯 칸으로 구분되었고, 각 칸마다 보살과 나한의 입상을 병풍처럼 새겼는데, 그 모양은 다 각기 달라, 혹은 어여쁘고, 혹은 영성굿고, 늠름한 기상과 온화한 자태는 참으로 성격까지 빈틈없이 표현하였으니, 신품(神品)이란 말은 이런 예술을 두고 이름이라.

(중략)

그러나 앞문은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 정작 굴 속은 별로 수선한 것이 없고, 아직도 옛 윤곽이 뚜렷이 남아있음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그 안에 모신 부처님, 관세음보살, 나한님네들의 좌상과 입상이 어느 것 하나 세상에 뛰어난 신품이 아님이 없다는 것은 좀된 붓 끝이 적이 꼬적거린 바로되, 석가님이 올라앉으신 돌 연대도 훌륭하거니와, 더구나 천장의 장치에 이르러서는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 하늘 모양으로 궁룡상(穹窿狀)*을 지었고, 그 복판에 탐스러운 연꽃 모양을 떠 놓은 것은 또 얼마나 그 의장이 빼어나고 솜씨가 능란한가? 온전히 돌이란 한 가지의 원료로 이렇도록 공교하고 평결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낳아 낸 것은, 모르면 몰라도 동양, 서양의 건축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한 장을 점령할 것이다.

굴문을 나서니, 밖에는 선경이 또한 나를 기다린다. 흰하게 터진 눈 아래 **어여쁜 파란 산들이** 떠엄떠엄 둘레둘레 머리를 조아리고 그 사이사이로 흰 물줄기가 굽이굽이 골안개에 싸이었는데, 하늘 끝 한 자락이 꿈결 같은 푸른빛을 드러낸 어름이 동해 바다라 한다. 오늘같이 흐리지 않은 날이면 동해 바다의 푸른 물결이 공중에 달린 듯이 떠 보이고, 그 위를 지나가는 큰 돛까지 나비의 날개처럼 곰실곰실 움직인다 한다. 더구나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아침 햇발이 둥실둥실 동해를 떠나오는 광경은 정말 선경 중에서도 선경이라 하나, 화식(火食) 먹는 나 같은 속인엔 **그런 선연(仙緣)이 있을 턱이 없다.**

- 현진건, 「불국사 기행」 -

* 궁룡상: 활이나 무지개같이 한가운데가 높고 길게 굽은 형상. 또는 그렇게 만든 천장이나 지붕 모양.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다)는 모두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다)는 모두 공간에 대해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새로운 문물과 제도에 대한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시련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9. (나)와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의 '늠연한 줄 반가온더'는 자연물에 대한, (다)의 '정말 찬란하다 할밖에 없다'는 인공물에 대한 감탄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나)의 '여위는 줄 전혀 엷다'는 변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고, (다)의 '지금 손질이 많았지만'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 ③ (나)의 '그윽한 향기'와 (다)의 '어여쁜 파란 산들'에는 모두 대상에 대한 호감이 담겨 있다.
 - ④ (나)의 '대숲이 푸르러세라'는 원하는 사물을 보았음을, (다)의 '그런 선연이 있을 턱이 없다'는 원하는 광경을 보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나)의 '청풍을 받겨'와 (다)의 '상쾌한 맑은 기운이 심신을 업습하여'는 모두 청빈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조선의 개국 주도 세력은 건국 후 한양이 풍수지리상 배산임수(背山臨水)의 조건을 갖춘 지덕(地德)이 성한 터라 주장하며, 구시대를 상징하는 개경을 떠나 한양으로 천도할 것을 결정했다. 도성 건설을 주관한 정도전은 「신도가」를 지어 개국을 송축하고 새로운 도성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또한 임금의 만수무강을 바라며 궁극적으로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 ① '네는 양주 | 쏘올히여'는 한양의 과거 지명과, '당금썩'은 한양의 현재 풍경과 관련된 것이로군.
- ② '신도형승이샷다'에는 새로운 도성 건설을 주관한 작가의 자부심이 담겨 있겠군.
- ③ '기국성왕이 성덕을 니르어샷다'는 조선의 개국을 송축하며 임금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로군.
- ④ '알픈 한강슈여 뒤흔 삼각산이여'는 풍수지리상 지덕이 성한 터임을 알려 주는군.
- ⑤ '만세를 누리쇼셔'는 궁극적으로 미래를 염두에 두고 조선 왕조의 무궁한 번영을 기원하는 것이겠군.

41. 작품의 제목을 고려할 때, (나)의 표현 방식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와 <제4수>에서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해 '사우'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사우'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제3수>와 <제4수>에서는 색채 대비를 통해 '사우'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사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제1수>부터 <제4수>까지 모두 계절감을 활용해 '사우'의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다)를 읽고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감상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불국사 기행」은 석굴암과 그 주변에서 본 것들에 대해 공간의 이동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 먼저 석굴암 입구에서는 ㉠ 좌우 돌벽에 새긴 인왕과 사천왕의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고, 굴 안으로 이동한 후에는 ㉡ 석가상의 온화한 얼굴을 묘사하며 그것을 바라볼 때 생기는 효과까지 제시하고 있다. ㉢ 다양한 모습을 지닌 좌우 석벽의 보살과 나한 입상에 대한 감동을 하나의 단어로 집약하는 것이나, ㉣ 석굴암 천장 장치의 예술적 기교를 건축사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굴 밖으로 나와서 ㉤ 주위의 절경과 동해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신선이 된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을 읽으며 글쓴이가 부러웠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 답

2018년 고3 학평 &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갈래 복합 기출 작품 목록

2018년 3월 고3 모의고사 34-38번									
34	⑤	35	①	36	④	37	⑤	38	②
2018년 4월 고3 모의고사 37-41번									
37	③	38	①	39	③	40	④	41	④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32-34									
		32	④	33	⑤	34	②		
2018년 7월 고3 모의고사 38-41번									
38	③	39	⑤	40	④	41	⑤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16-20번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2018년 10월 고3 모의고사 38-42번									
16	①	17	②	18	⑤	19	③	20	③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18년 3월 학력평가>

- 송순, '면양정가'
- 나위소, '강호구가'.
- 채수, '석가산폭포기'(수필).

<2018년 4월 학력평가>

- 정훈, '용추유영가'.
- 장경세, '강호연군가'.
- 노천명, '산나물'(수필).

<2019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 작자미상, '서경별곡'.
- 조위, '만분가'.

<2018년 7월 학력평가>

- 장복겸, '고산별곡'.
- 윤오영, '까치'(수필).

<2019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시가복합)>

- 권호문, '한거십팔곡'
- 박재삼, '추억에서'(현대시).

<2018년 10월 학력평가>

- 정도전, '신도가'.
- 이신의, '사우가'.
- 현진건, '불국사 기행'(수필).

로그인/회원가입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공유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